

세상이 뒤집어졌을때
When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Message #16: : 우리는 무엇에 속해 있습니까?
To what do we belong?
사도행전Acts 11:19-3

사도행전Acts 11:19-20

19.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20.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Now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that broke out when Stephen was killed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Cyprus and Antioch, spreading the word only among Jews. 20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Cyrene, went to Antioch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사도행전Acts 11:21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21 The Lord's han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사도행전Acts 11:22-26

22.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23.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24.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25.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26.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일 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22 News of this reached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23 When he arrived and saw what the grace of God had done, he was glad and encouraged them all to remain true to the Lord with all their hearts. 24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25 Then Barnabas went to Tarsus to look for Saul, 26 and when he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So for a whole year Barnabas and Saul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great numbers of people. The disciples were called Christians first at Antioch.

사도행전 Acts 11:26

And in Antioch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